



[투자전략센터] 2016. 3. 15

SAMSUNG DAILY

- China Focus
변동성을 받아 치는 구간
- KOREA 30
- CHINA 10
- 글로벌 ETF
- 수급 빅매치
- Market Indicators
- 증시 캘린더

김도현

Dohyun3258.kim@samsung.com
02 2020 7032

China Focus

변동성을 받아 치는 구간

주요 기술적 저항선을 사이에 두고 중국본토시장의 수급세력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책모멘텀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단순 차익매물을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해종합지수 기준 '2,900pt이하에서는 충분한 저가매수 구간'이라는 기존의견을 '3,050pt이하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매수에 참여할 구간'이라는 의견으로 수정한다. (3월 3일자 China Focus참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낙폭 및 재료에 주목하는 Top-Down전략이 단조로운 Bottom Up전략보다는 유망해 보이는 국면이다. 이미 시장에 충분히 노출된 악재, 즉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나 부진한 경제지표 등을 이유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라는 의견을 첨부한다.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우선, 중국경제 및 자본시장과 관련해 투자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양회기간 중 다양한 고위당국자들이 경제주체들에게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과 관련된 중국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둘째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의 근거가 돼왔던 기존의 가정들이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2월 22일 Global테마브리핑 참조) 이대로라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진행되더라도 위안화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부각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중국국내 투자자들도 더 이상 단기적인 악재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본토 투자자들의 신뢰가 점차 축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당국자들이 발언한 내용들 중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3가지로 정리 가능하다. 우선, 중국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중국 NDRC(發改委)의 수장은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중앙은행장은 '현재 중국경제는 과도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두 번째로는, 과잉공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로 인해 거시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실직하게 될 종업원들을 위한 지원자금의 규모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는 자본시장이 큰 위협에 직면할 시에는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의 재확인해주고 있다. 지난 주말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임 CSRC(證監委)주석은 시장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림1. 상해종합지수 기준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인 3,050pt



자료: 삼성증권

누차에 걸쳐 본 컬럼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위안화의 약세'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위협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본토 주식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달러화의 일방적인 강세와 원자재가격의 일방적인 약세가 더 이상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CB의 정책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오히려 유로화대비 약세로 전락하기도 했고, 국제 원자재 가격 또한 서서히 반등의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는 동절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월 저가 대비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인 바 있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 이야기가 틀려질 수 있는 있겠으나, 지금의 분위기라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위안화 가치에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된 위안화의 약세 가능성은 작년 이후 중국본토 시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악재이다. 만일 이 악재가 소멸될 수 있다면 중국 중앙은행은 유연한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자그마한 변수에도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던 중국본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중국과 홍콩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 했음에도 주식 및 환율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8일에는 2월 수출입 동향이 전년 동월 대비 매우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오히려 -3%가량 하락하던 시장이 상승세로 마감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재까지 노출된 악재들에 대해 중국본토 투자자들이 둔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악재의 출현이 곧 Panic Selling으로 이어지던 지난 1월~2월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이다.

다만, 바닥권을 맴돌던 정부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순간에 시장을 움직이는 큰 호재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2015년 상반기와 같은

유동성장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반등의 한계를 고점대비 낙폭의 40%회복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번 주말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변수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16일에는 전인대가 폐막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총리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미국현지 시간으로 3월 16일은 FOMC가 금리결정을 내리는 날이기도 하다. 만일,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3월 16일을 전후해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진다면 단기반등을 노린 저가매수의 기회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반등의 목표치는 2,600pt대 초반에서 쌍바닥을 확인한 W자 패턴의 오른쪽 어깨에 해당하는 3050pt이다. 전인대를 계기로 중국정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본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점차 획득해나가고 있다. 중국본토 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의 척도는 정부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라는 점을 기억할 시기이다.

투자정보팀

daeyong.yang@samsung.com
02 2020 7705

KOREA 30 포트폴리오

수익률 (%)	1주	1개월	3개월	YTD	설정이후(2015. 1. 2 ~ 2016. 3. 14)
KOREA30	+0.75	+6.96	-1.65	-4.21	+6.41
KOSPI	+0.74	+7.46	+1.03	+0.56	+2.96
초과수익률	+0.02	-0.51	-2.69	-4.77	+3.45

1. 성장형 포트폴리오

종목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메디톡스 (086900)	464,000	- 글로벌 보톡스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 가시화 - 이노톡스 3상 개시 시 250억원 마일스톤 수취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	2016-02-02	(-12.1%)
LG화학 (051910)	303,500	- 16년 중국/유럽/미국 자동차업체향 매출 본격화로 2차전지 흑자전망 - 세계 1위 ESS업체 AES社와 공급계약 체결로 배터리 경쟁력 강화	2016-01-04	(-7.6%)
SK케미칼 (006120)	83,800	- 혈우병치료제 美 FDA 승인 시 마일스톤·판매로열티로 실적 개선 전망 - 테이진社와 이니츠 PPS(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개시로 외형성장 기대	2016-01-04	(+15.4%)
CJ E&M (130960)	76,500	- 방송부문의 강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광고 매출 상승 지속 - 영화와 넷마블게임즈의 해외 부문 시장 진출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보	2015-12-10	(-12.4%)
LIG넥스원* (079550)	115,500	-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에 따른 중장기 성장 전망 - 주요 제품의 양산단계 진입으로 본격적인 이익성장기 예상	2015-11-23	(+4.1%)
NAVER (035420)	635,000	- 라인의 트래픽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 모델의 성공 가능성 확인 - 네이버 TV캐스트, V앱 등 신규 서비스의 중장기 성장성 확보	2015-11-03	(+5.3%)
CJ CGV (079160)	116,000	- 중국·베트남 영화산업 고성장 수혜로 해외법인 이익 정상화 전망 - 국내 및 해외 신규 출점 사이클 안정화로 중장기 수익성 개선세 기대	2015-08-07	(-5.7%)
S-Oil (010950)	84,700	- 정제마진 호조로 8개 분기 만에 정유 부문 실적 흑자전환 전망 - 사우디 아람코 자회사 편입으로 안정적인 원유 조달 및 제품 판매 기대	2015-03-27	(+33.8%)
LG생활건강 (051900)	886,000	- 면세점 채널을 통한 프레스티지 화장품 매출 급증으로 수익성 개선 - 사상최대 실적 경신으로 동종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	2015-01-28	(+41.5%)
아모레퍼시픽 (090430)	367,000	- 중국 내 주요 브랜드 추가 출점과 유통 채널 다각화로 매출 성장 기대 - 고마진 면세점 채널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화장품 사업 이익성장 지속	2015-01-02	(+65.3%)

(다음 페이지에 계속)

2. 밸류형 포트폴리오

종목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SK하이닉스 (000660)	30,350	- 칭화유니그룹의 Western Digital 투자 철회에 따른 시장 리스크 완화 - 20나노급 공정전환과 3D NAND 양산 체제 돌입으로 원가 경쟁력 강화	2016-03-04	(-5.0%)
롯데쇼핑 (023530)	277,000	- 다양한 유통 채널 보유에 따라 향후 사후면세점 시장 성장시 수혜 기대 - 호텔롯데 IPO 이후 경영권 불확실성 해소와 지주사 전환 가능성	2016-03-04	(+9.5%)
현대건설 (000720)	39,850	- 4분기 실적을 통해 해외 원가율과 현금흐름 개선 확인 - 미청구공사채권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마진 예상	2016-03-04	(-2.6%)
KB금융 (105560)	32,750	- 압도적으로 높은 자본적정성을 바탕으로 한 주주환원정책 확대 - 향후 KB손보, KB캐피탈 등의 비은행 계열사와 시너지 강화 기대	2016-02-18	(+4.6%)
현대모비스 (012330)	249,000	- 고사양 차종 증가에 따른 핵심부품 매출 성장 전망 - 현대차그룹의 신규 공장 가동 수혜 및 친환경차 핵심부품 사업 주도	2016-02-18	(-5.0%)
LS (006260)	44,150	- 주력 자회사 LS전선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화 - 일회성 비용 발생 사이클 종료로 인한 수익구조 정상화	2016-02-12	(+13.5%)
삼양사 (145990)	98,600	- 삼양제넥스와의 합병으로 식품사업 과점적 지위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 - 중장기 PET병 시장의 지배력 강화 및 이온 교환수지 사업의 성장성	2016-02-11	(-11.2%)
LG전자 (066570)	62,700	- 2016년 상반기 프리미엄 가전·OLED TV 중심 실적 개선 전망 - 전장부품 사업 본격화와 사물인터넷 확산에 따른 새로운 성장 기회	2016-01-15	(+8.3%)
영원무역 (111770)	50,000	- 中 스포츠웨어 시장 급성장으로 전방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 - 원화약세 효과와 Scott 실적 반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부각	2016-01-15	(+4.2%)
현대글로비스 (086280)	186,000	- 현대·기아차 향 PCC물량 확대와 CKD 및 해외 물류 매출 성장 전망 - 원화 약세로 수익성 개선 전망(하반기 원/달러 환율 YoY 10% 상승)	2015-10-23	(-16.8%)
SK (034730)	229,000	- SK텔레콤·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 등 주력 자회사 실적 호조 - 반도체모듈·바이오·물류 등 신사업 성장성 부각	2015-10-23	(-15.0%)
현대차 (005380)	148,500	- 현 주가 수준은 5년 기준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위치 저평가 매력 - 韓·中 자동차 수요 부양책 발표와 VW 대규모 리콜 반사익 기대	2015-01-02	(-12.1%)
삼성전자 (005930)	1,255,000	- 1분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및 중저가 상품성 강화로 매출 회복 기대 - 시스템 LSI 턴어라운드와 3D NAND 기술 선도로 반도체 이익고성장	2015-01-02	(-5.4%)

(다음 페이지에 계속)

3. 스몰캡 포트폴리오

종목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한독* (221260)	34,150	- 시가총액 대비 한독의 제넥신 지분과 부동산 가치 감안시 저평가 매력 - 자회사 제넥신의 지속형 성장호르몬 등 신약 모멘텀 보유	2016-03-10	(+3.8%)
이노션* (214320)	82,900	- 제네시스 브랜드 론칭 및 주요 볼륨모델 출시에 따른 이익 증가 예상 -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제외로 그룹사 대행 물량 회복 전망	2016-02-29	(-0.1%)
대림B&CO* (005750)	15,400	- 지난 3년간의 주택 신규 분양 물량 증가의 효과가 2016년부터 본격화 - 최근 위생도기 B2C로의 사업 확대로 매출성장과 이익 기여 증가 전망	2016-02-03	(+3.4%)
서울옥션 (063170)	19,900	- 국내 1위 사업자로서 국내외 미술품 경매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 - 높아진 한국 '단색화' 위상으로 홍콩 메이저 경매 낙찰액 가파른 성장	2016-01-08	(-5.2%)
이오테크닉스* (039030)	119,300	- 플렉서블 OLED 패널용 폴리이미드 레이저 커팅 장비 수주 확대 전망 - TSMC·대만 패키징 업체 반도체 통합칩 레이저 드릴링 장비 공급기대	2015-12-23	(+5.5%)
비아트론* (141000)	24,900	- 글로벌·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고객사 보유로 OLED 투자사이클 수혜 - 하반기 이후 플렉서블 OLED 용 PIC장비 매출 확대로 수익성 개선 예상	2015-11-13	(+50.9%)
포비스티앤씨* (016670)	2,490	- 소프트웨어 국내 유통 플랫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부각 - 충분한 보유 현금과 사업 연관성을 고려한 추가 M&A 전략 기대	2015-09-16	(-21.9%)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계열사 - 삼성전자, 삼성전기

※ 당사는 고객의 투자위험관리를 위하여 고객님의 KOREA30 종목에 투자하실 경우 한 종목 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투자를 추천 드립니다.
개별 종목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세 종목 이상 분산 투자를 하여 고변동성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China Center

china.center@samsung.com

02 2020 7032

CHINA10 포트폴리오

수익률 (%)	1주	1개월	3개월	YTD	설정이후 (2015. 1. 2 ~ 2016. 3.14)
CHINA10	-0.56%	+3.47%	-16.49%	-20.36%	+3.55%

종목 (티커)	주가 (CNY)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성도봉박사테크놀로지 (600804)	19.47	- 중국 4위, 민간기업 기준으로 1위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 정부의 브로드밴드망 확대 정책 수혜 및 빅데이터 사업 기대	2016-03-10	(+3.1%)
중국거석 (600176)	20.10	- 중국 최대 유리섬유 제조업체.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수혜 - 유리섬유 산업 호황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성장	2016-03-08	(+1.3%)
중국중철 (601390)	8.03	-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등 인프라 확대 정책의 수혜 - 양회 전후 정책관련주 주도의 투자심리 개선 전망	2016-03-03	(+3.8%)
안휘해라시멘트 (600585)	15.77	- 글로벌 4위의 시멘트 및 크랑커 제조업체 - 인프라투자 확대 및 과잉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	2016-02-22	(+11.0%)
용기실리콘소재 (601012)	11.53	- 단결정 웨이퍼생산 글로벌 1위 기업, 단결정 시장의 25%를 점유 - 정부의 신에너지 발전 사업과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	2016-02-17	(+3.2%)
중국건축 (601668)	5.60	- 중국 최대 건축 부동산 종합그룹으로, 정부 소유의 저평가 기업 -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인프라투자 확대의 수혜주	2016-01-25	(+2.6%)
중국국제여행사 (601888)	42.50	- 중국 여행 선두기업으로, 상장기업 중 유일하게 면세점 면허 보유 - 세계 최대 하이탄완면세점 및 해외 면세점의 실적 개선 기대	2016-01-12	(-20.0%)
화하행복부동산 (600340)	23.96	- 개발중인 면적의 80%가 징진지 지역, '징진지 일체화'정책 수혜 - 북경 주요 행정기관의 통저우 지역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 수혜	2016-01-04	(-22.0%)
국전남서테크놀로지 (600406)	13.04	- 국가전력망 산하 유일한 상장사로, 중국 전력망자동화 M/S 30% - 중국 스마트그리드 시장확대 및 국가전력망 개혁의 수혜	2015-09-22	(-14.4%)
동방명주 (600637)	27.32	- 대표 뉴미디어기업으로, 중국 최대 미디어그룹인 SMG의 자회사 - IPTV/인터넷·모바일TV/온라인콘텐츠 등 매스미디어 라이선스 보유	2015-09-10	(-15.8%)

참고: China 10 종목은 후강통 주식으로 구성.

※ 당사는 고객의 투자위험관리를 위하여 中國주식에 투자하실 경우 자산의 10% 이내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의 투자를 추천 드립니다.
개별 종목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세 종목 이상 분산 투자를 하여 고변동성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해외주식팀

e.trading@samsung.com
02 2020 7306

글로벌 ETF

종목 (티커)	주가 (USD)	펀드 개요 및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Energy Select Sector SPDR (XLE)	USD 62.36	- 미국 에너지 섹터 주요종목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엑슨모빌, 셰브론, 쉘버그, EOG 리소시스 등 - 미국 에너지 기업 실적 안정화 및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주요 산유국 감산 합의 가능성 제기	2/5	(+11.5%)
PowerShares DB US Dollar Index (UUP)	USD 24.95	- 미국 달러 인덱스를 추종하며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강세에 투자 - 상대 통화는 유로(58%), 엔(14%), 파운드(12%), 캐나다 달러(9%), 스웨덴 크로나(4%), 스위스프랑(4%)으로 구성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지속 전망	1/4	(-2.7%)
Financials Select Sector SPDR (XLF)	USD 22.49	- 미국 금융섹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S&P 500내 90여 금융주로 구성 - 은행주들이 전체의 약 36%로 최대비중 차지. - 연준 금리인상에 따른 수혜 예상.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 예대마진 개선 및 보험사 투자수익률 상승 등 금융업종 전반적 수혜 기대	1/4	(-5.6%)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XLY)	USD 77.30	- 미국 주요 경기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ETF - 아마존닷컴, 홈데포, 월트디즈니, 컴캐스트, 맥도날드, 스타벅스, 나이키 등 경기소비재 업종 전반 주요종목을 보유 - 미국 고용안정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소비재 섹터 강세 전망	1/4	(-1.1%)
WisdomTree Europe Hedged Equity (HEDJ)	USD 52.50	- 유럽 주요종목에 투자하는 환헷지형 ETF - 미국 달러/유로화 헷지를 통해,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환 손실 제한 - ECB 양적완화 지속에 따른 유로화 약세 및 유럽 실물경기 회복으로 인한 실적개선 기대	1/4	(-2.4%)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해외주식팀

e.trading@samsung.com
02 2020 7306

종목 (티커)	주가 (USD)	펀드 개요 및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WisdomTree Japan Hedged Equity (DXJ)	USD 44.94	- 일본 주요종목에 투자하는 환헷지형 ETF - 미국 달러/엔화 헷지를 통해,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환 손실 제한 - 디플레이션 탈피에 따른 일본시장 리레이팅 가능성, 기업실적 호조, 수급 개선에 따른 일본 증시 강세 기대	1/4	(-10.3%)
PowerShares QQQ Nasdaq 100 (QQQ)	USD 106.49	- 미국 나스닥 대표 100종목에 투자하는 ETF - 애플, 알파벳을 포함한 IT 기업과 길리어드 사이언스, 암젠, 셀진 등 바이오테크 기업, 디즈니, 컴캐스트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모두 포함 - 유동성 및 펀드총자산 규모에서 미국 투자 대표 ETF 중 하나	1/4	(-4.8%)
iShares Nasdaq Biotechnology (IBB)	USD 261.94	- 미국 주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셀진, 바이오젠,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 - 최근 미국 바이오테크 섹터 주가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 주요 보유종목들의 2016년 예상 P/E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7.4배, 암젠 14.9배, 바이오젠 14.8배 등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1/4	(-22.6%)
First Trust Dow Jones Internet Index (FDN)	USD 67.20	- 미국 주요 인터넷 업체에 투자하는 ETF -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세일즈포스닷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클라우드컴퓨팅 업체 등을 보유 - 미디어/콘텐츠,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 성장 기대	1/4	(-9.9%)
PowerShares DB Commodity Index (DBC)	USD 13.44	-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14개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알루미늄, 구리, 대두, 설탕, 밀 등을 보유 - 글로벌 원자재 낙폭 과대에 따른 Bottom-fishing 관점에서 접근 - 개별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원자재의 전반적 가격 상승에 베팅	1/4	(+0.6%)

참고: 상기 ETF는 모두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중.

투자정보팀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수급 빅매치

전일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LG생활건강	231	1	삼성전자	91
SK하이닉스	137	2	LG전자	89
NAVER	100	3	삼성전기	78
한국전력	91	4	하나금융지주	64
현대홈쇼핑	91	5	삼성물산	61
현대중공업	88	6	S-Oil	58
현대차	70	7	코스맥스	57
LG화학	68	8	LG디스플레이	52
LG	68	9	메리츠종금증권	46
SK텔레콤	63	10	아모레퍼시픽	43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셀트리온	66	1	오스템임플란트	51
디오	40	2	아트라스BX	33
게임빌	34	3	파트론	29
우리산업	27	4	원익IPS	18
카카오	26	5	로엔	17
인트론바이오	25	6	코미팜	16
매일유업	23	7	메디톡스	16
에프티이앤이	22	8	서울반도체	16
아가방컴퍼니	16	9	바이로메드	14
모두투어	14	10	휴온스	12

전일 기관 주요 매매 종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아모레퍼시픽	172	1	엔씨소프트	370
삼성전자	160	2	POSCO	292
하나금융지주	152	3	SK하이닉스	254
KB금융	133	4	SK텔레콤	182
기아차	104	5	한미약품	161
CJ CGV	60	6	현대제철	107
삼성생명	59	7	LG	101
LG전자	44	8	한샘	96
LG디스플레이	43	9	NAVER	93
현대엘리베이	40	10	쿠쿠전자	85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카카오	95	1	인바디	31
콜마비엔에이치	38	2	아이센스	30
아트라스BX	34	3	로엔	30
CJ E&M	19	4	한국토지신탁	2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5	5	NEW	18
바이넥스	14	6	이오테크닉스	18
골프존유원홀딩스	10	7	바이로메드	18
서울반도체	10	8	GS홈쇼핑	17
뷰웍스	9	9	인트론바이오	17
에코프로	8	10	휴온스	16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한국거래소

전일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주요종목

유가증권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CJ CGV	60	1	LG화학	68
삼성생명	59	2	BGF리테일	46
삼성화재	30	3	신한지주	24

코스닥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카카오	95	1	셀트리온	66
CJ E&M	19	2	디오	40
골프존유원홀딩스	10	3	게임빌	34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한국거래소

최근 5일간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삼성전자	649	2.7	1	삼성전자우	525	2.0
POSCO	591	-3.8	2	아모레퍼시픽	458	-1.1
현대중공업	579	-3.0	3	오리온	342	7.0
SK하이닉스	465	-4.9	4	효성	281	3.1
현대차	363	1.4	5	삼성생명	279	0.9
현대모비스	350	-2.0	6	롯데케미칼	235	3.4
신한지주	325	3.4	7	S-Oil	226	-0.8
KT&G	318	2.4	8	LG디스플레이	213	3.8
삼성물산	312	-2.3	9	금호석유	184	-6.9
현대제철	298	-2.4	10	하나금융지주	164	4.1

코스닥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카카오	251	6.9	1	셀트리온	349	-2.9
디오	240	-0.7	2	아트라스BX	305	21.8
휴젤	147	1.1	3	바이로메드	117	-4.6
메디톡스	117	1.6	4	슈프리마	84	19.5
케어젠	84	12.4	5	뉴트리바이오텍	69	-1.8
게임빌	84	2.0	6	인트론바이오	68	3.9
이오테크닉스	73	-6.5	7	코미팜	58	-1.2
매일유업	61	5.9	8	파라다이스	55	4.6
셀바이오텍	58	0.6	9	인바디	53	-4.8
모두투어	54	4.7	10	CJ E&M	42	3.0

최근 5일간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삼성생명	472	1.1	1	삼성전자	1,488	2.7
LG디스플레이	443	3.8	2	SK하이닉스	1,393	-4.9
오리온	419	7.0	3	삼성물산	1,209	-2.3
롯데케미칼	320	3.4	4	한미약품	881	-5.8
대한항공	275	3.3	5	POSCO	628	-3.8
한국전력	240	3.5	6	한미사이언스	602	-6.2
GS건설	213	2.0	7	현대글로벌비스	418	-2.9
S-Oil	200	-0.8	8	현대모비스	389	-2.0
기아차	174	3.0	9	SK텔레콤	344	1.4
하나금융지주	170	4.1	10	호텔신라	316	-3.7

코스닥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카카오	348	6.9	1	메디톡스	117	1.6
아트라스BX	232	21.8	2	인트론바이오	106	3.9
CJ E&M	125	3.0	3	휴젤	101	1.1
셀트리온	123	-2.9	4	NEW	79	3.1
콜마비앤에이치	110	15.7	5	인바디	73	-4.8
메디포스트	78	9.3	6	휴온스	56	-2.2
실리콘웍스	65	8.0	7	우리산업	54	0.9
뉴트리바이오텍	63	-1.8	8	이오테크닉스	54	-6.5
케어젠	52	12.4	9	GS홈쇼핑	52	2.8
게임빌	48	2.0	10	한국토지신탁	51	0.4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Fnguide

기관/외국인 순매수 전환 종목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대우조선해양, 롯데관광개발, 선진	코스닥 시장	외국인	제넥신, 제넥스, NEW
	기관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삼양홀딩스		기관	원일특강

참고: 순매수 전환은 2일 연속 매도에서 2일 연속 매수 전환하고, 매수금액이 매도금액보다 큰 종목
자료: Fnguide

Market Indicators

투자정보팀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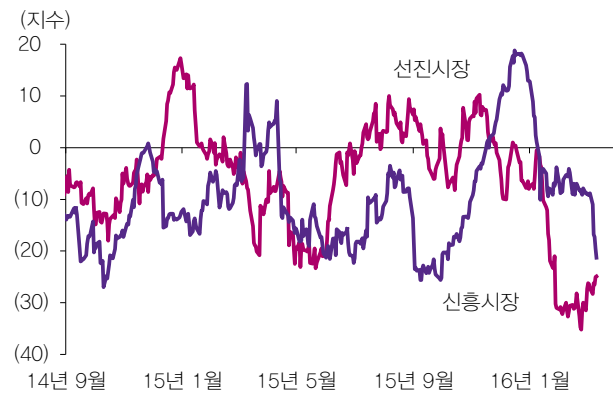
Macro Indicator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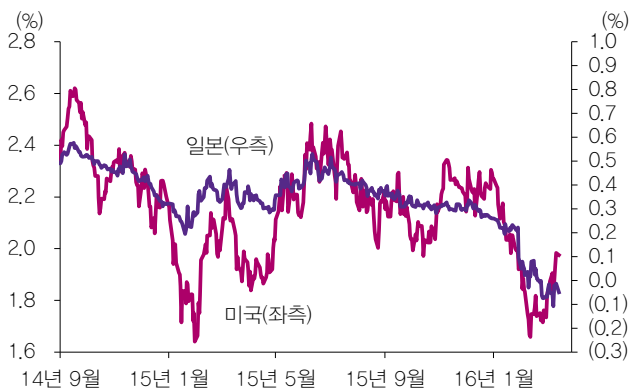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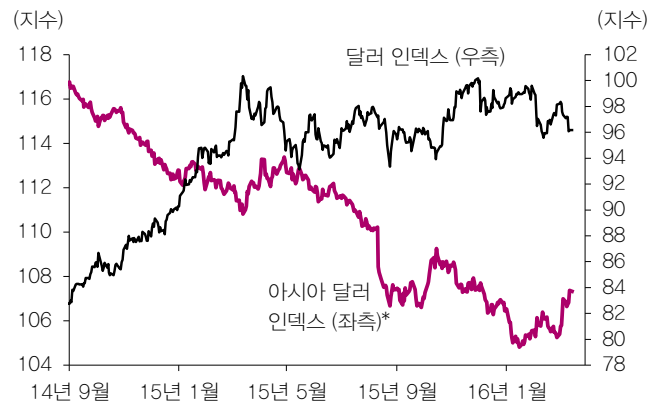
미국/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참조: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달러 인덱스와 아시아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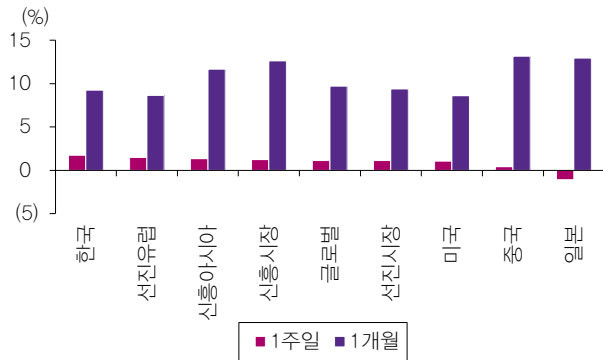


참조: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10개국 통화 가치

자료: Bloomberg

글로벌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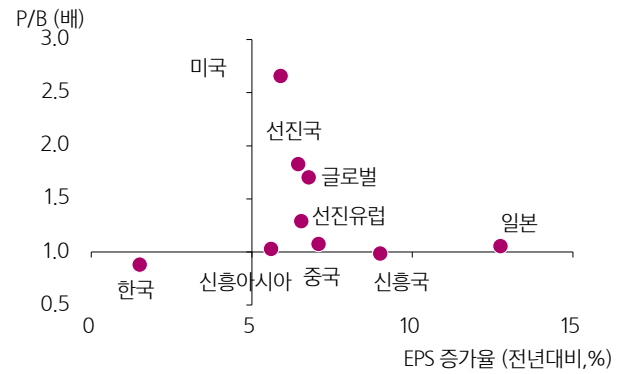
MSCI 지역별 증시 성과



참고: 3월 4일 ~ 3월 1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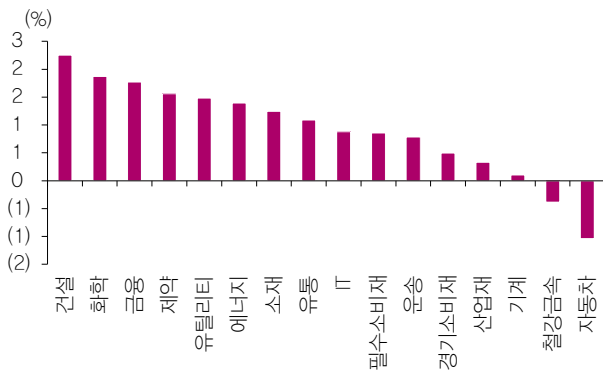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지역별 12개월 선행 기준 예상 EPS 증가율 및 P/B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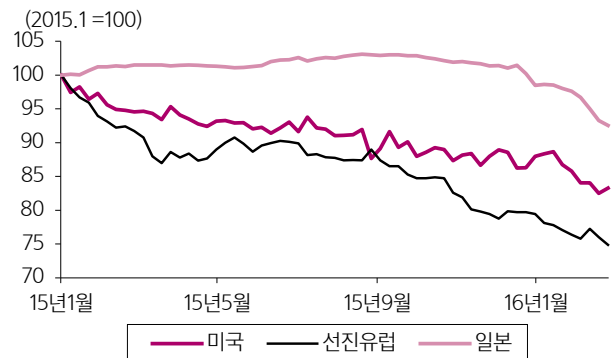
MSCI 선진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3월 4일 ~ 3월 1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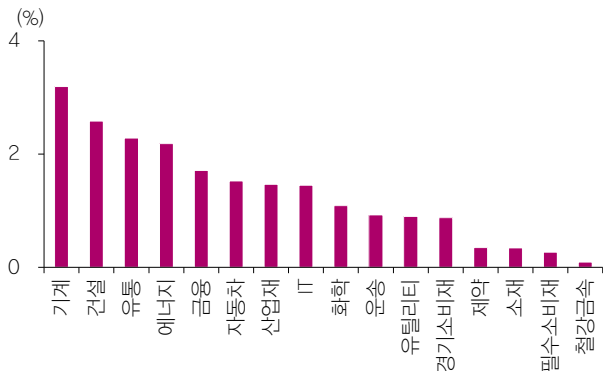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주요 국가별 2016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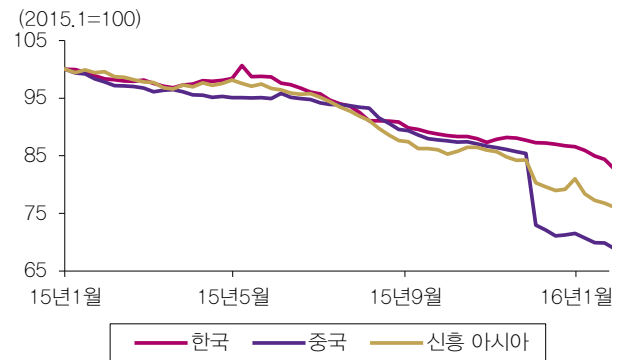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3월 4일 ~ 3월 1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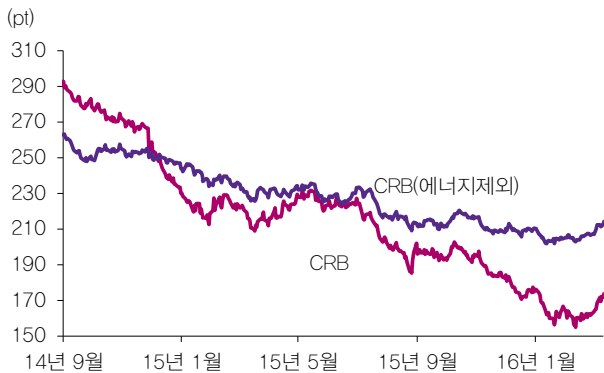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주요 국가별 2016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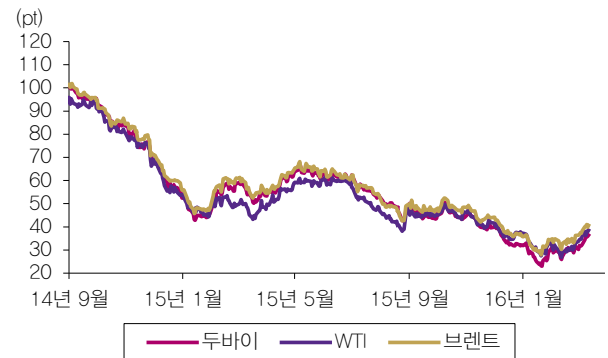
상품 및 산업 Indicators

TR/Jefferies CRB Index



자료: Thomson Reuters, 주: CRB(농산물+에너지+비철금속)

국제유가



자료: Thomson Reuters

싱가포르 정제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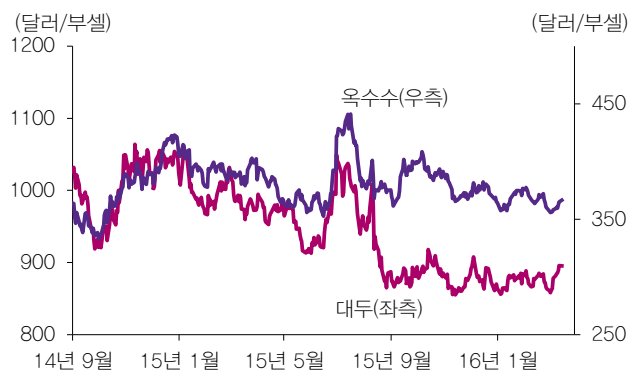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항공유 & 가솔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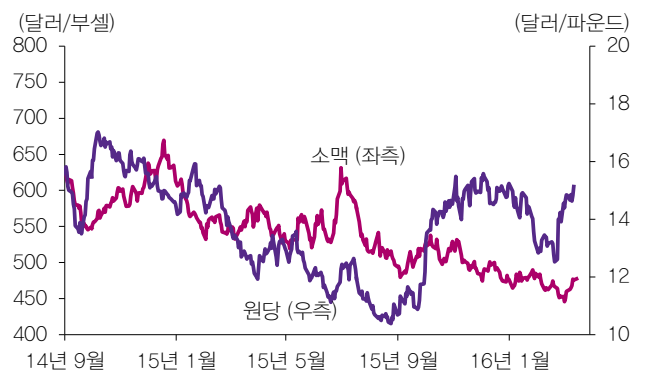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두 & 옥수수



자료: Thomson Reuters

소맥 & 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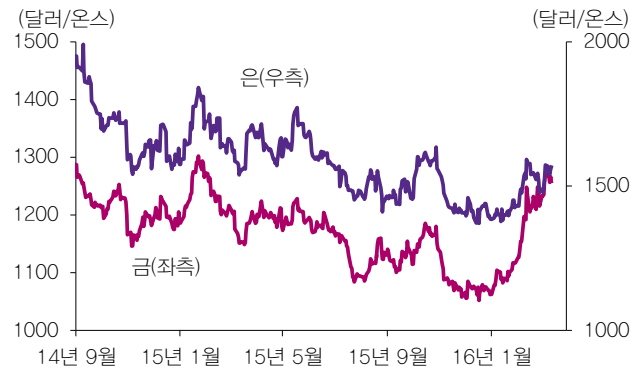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LME(비철금속)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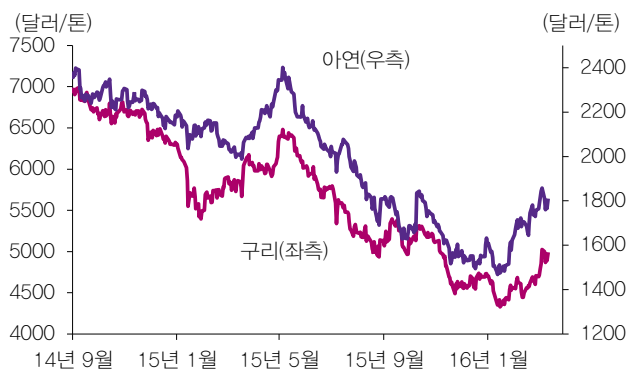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귀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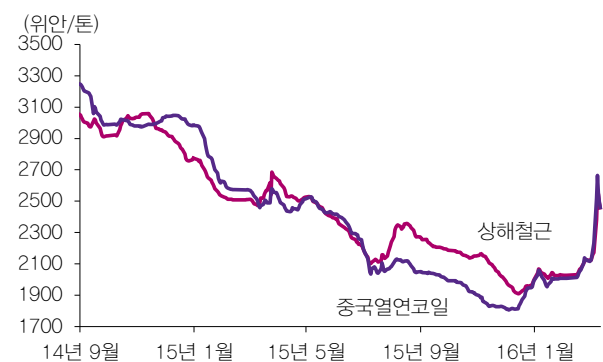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비철금속 가격



자료: Thomson Reuters

철강 유통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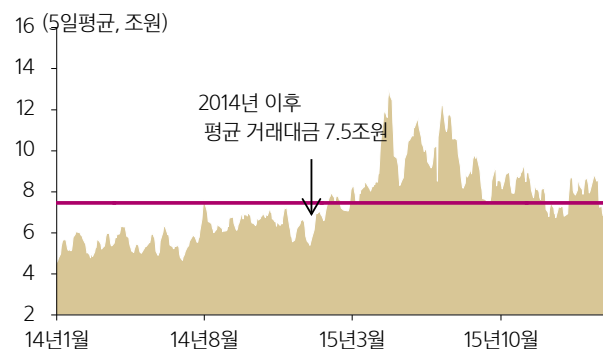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Fnguide

KOSPI & KOSDAQ 거래대금



자료: KRX

증시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14	15	16	17	18
[유럽] 1월 산업생산(전월대비) (2월 -/E 1.4%/P -1.0%)	[미국] 2월 소매판매(전월대비) (2월 -/E -0.1%/P 0.2%) 2월 생산자물가지수(전월대비) (2월 -/E -0.1%/P 0.1%) 3월 뉴욕주제조업지수 (3월 -/E -10.00/P -16.64) 3월 NANB주택시장지수 (3월 -/E 59/P 58)	[미국] MBA주택융자신청지수(전주대비) (3월2주 -/E -/P -0.2%) 2월 주택착공건수(전건) (2월 -/E1150/P 1099) 2월 건축허가(전건) (2월 -/E1201/P 1202) 2월 소비자물가지수(전월대비) (2월 -/E -0.2%/P 0.0%) 2월 광공업생산(전월대비) (2월 -/E -0.2%/P 0.9%) 2월 미 FOMC금리결정 (2월 -/E 0.50%/P 0.50%) [한국] 2월 실업률 (2월 -/E 3.8%/P 3.5%)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전건) (3월2주 -/E -/P 259) 2월 경제선행지수(전월대비) (2월 -/E -0.2%/P -0.2%) [유럽] 2월 생산자물가지수(전월대비) (2월 -/E 0.1%/P -1.4%)	[미국] 3월 미시건대 소비자지수 (3월 -/E 92.2/P 91.7) [한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전년대비) (2월 -/E -%/P -3.3%)
21	22	23	24	25
美 2월 기존주택매매	美 1월 FHFA 주택가격지수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2월 신규주택매매 韓 2월 실업률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월 내구재주문 3월 제조업PMI 유 3월 소비자대지수 3월 마켓 유로존 PMI	美 4분기 GDP 4분기 개인소비 韓 4분기 GDP
* 증시휴장-일본 등				* 증시휴장-미국·홍콩 등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 E: 예상치, P: 직전발표치
 자료: Bloomberg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투자전략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